

[소식] 2002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오늘 (7월25일) 오전 9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02 전국영양사 학술대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축사를 했다고 金賢美 부대변인이 전언.

국민 영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일선 회장님을 비롯한 영양사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영양사 여러분이 개인의 영양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누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삶의 질’이 새로운 국가 목표, 사회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삶의 질’이라는 말이 피부에 느낌으로 오지 않고 공허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제기하는 문제와 주제들을 보니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가 이곳에서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영양사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깊이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분 대표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했다.

우리에게 전문적인 영양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학교급식법 등 각종 법령에서 영양사 배치를 규정하고, 각 인구집단의 영양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법령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고, 직급과 근로시간, 보수 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잘 들어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건의하는 교육자원부에 학교급식과 설치, 국가기관에 영양전담 부서 설치, 보건소 영양사 정규직 임명, 영유아보육시설과 사회단체 급식에 영양사 배치, 군대 등 공공영역에 영양사 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학교 영양사에게 교직을 부여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모든 정책을 채택하는 데에는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깊은 논의를 거쳐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국민에 아주 소중한 분들인 만큼 사회변화와 걸맞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길 바란다.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 끝.

2002년 7월 25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